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

가설주택(假設住宅)으로 케어하는 일본

지금 부터 10년 전 1995년, 한신대지진(阪神大地震)이 일어났던 일본은 너무나도 갑작스런 큰 지진의 큰 비극을 잊지 못하고 있다. 그 때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의 많은 활동과 의료복지 분야의 원조, 그리고 일반 회사원들도 장기휴가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했던 풍경이 아직도 잊혀 지지가 않는다. 지진의 재해에서 피할 수 없는 일본 열도, 지금도 여기저기에서는 작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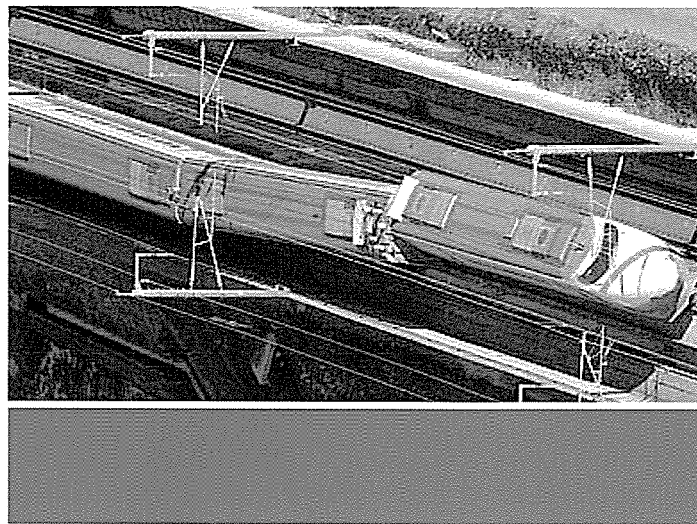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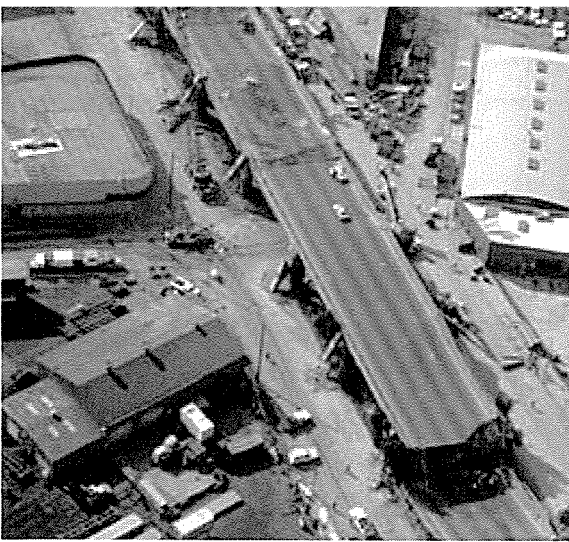
작년 11월, 눈이 늘 많이 내리는 일본의 관동북쪽에 위치한 니이가타(新潟)에서도 큰 지진에 많은 피해가 있었다.

고령자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니이가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는 것이 거동이 불편하신 고령자, 혼자 사시는 독거 고령자 같은 분들과 관련된 것이다.

이 번 니이가타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다행히 근처의 특별노인홈에서 수용인원을 훨씬 넘는 고령자들이 임시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어르신들은 본인이 살던 집이 언제쯤 복귀 될까하며 마냥 기다리며 불안이 가득해 보였다. 특히,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상의 특징에 “앞으로 긴긴 겨울에 언제 집에 돌아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라며 걱정을 비추었다.

이런 재해 시 수용인원이 넘쳐나는 임시거처는 기존에 생활하고 있는 고령자와 피해 고령자, 그리고 이곳에서 고령자들을 돌보는 개호사회복지사들이 함께 모여있어



서로에게 모두 힘든 생활이 따라지게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각 지방자치체 중심으로 가설주택을 설치하는 것, 그 중 그룹 홈의 형식으로 케어를 겸비한 가설주택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 일각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長崎國際大學大學院教授 高橋信幸 朝日新聞 2004年11月23日)

그러나 이러한 자연재해의 피해는 일본의 개호 보험으로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며, 데이서비스나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던 고령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답답한 때이다. 이러한 문제는 겨울이면 폭설이 내리는 우리나라 강원도쪽의 고령자들에게도 해당된다.

앞서 말한 케어를 겸비한 가설주택은 단지 피난처로서 장소만 제공해 주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고 생각된다. 우선적으로 늘 노인들이 살아 온 익숙한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이념이 있어야 하고, 그런 후 각자 복귀 후 본인의 집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최대한 모든 상황을 배려하는 곳으로 되어 지길 바라는 듯하다.

일본은 각 현(県)이 가설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항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여기서 가설주택은, 긴급가설주택은 昭和소화22(1947)년에 재정되어 재해구조법 제 23조에 근거, 설치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전멸상실한 세대의 30%이내로 되어 있었으나, 재해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수가 설치되어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설치기간은 2년간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지진재해 후 1년 단위로 사용 연장 되도록 관련법이 정비되었다.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한신 대지진후 건설된 가구 수는 재해 시 큰 역할을 했는데, 그 후 2003년 이란 지진 때도 이 가설주택이 원조로 보내져 이란의 지진 피

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인 지원 외 생각지도 못한 무서운 재해에 대한 놀라움과 충격, 의욕상실 등에 대한 원조 또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해야 할 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심적인 스트레스는 재해 피난인들에게는 생활 전체적인 큰 격변이 있을 것이며 지금까지는 없었던 재해 후 스트레스라는 피해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새로운 곳에 대한 적응과 수속, 인간관계, 변화된 생활환경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반복되어 지게 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가설 주택의 생활이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많은 자연재해는 우리 모두에게 예측 불허로 나타 난다. 할 수 있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 조금이라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재해 관계적인 정부 입장에서의 대비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이 있다면 재해에 대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지진의 피해는 없는 곳임에 감사하지만, 혹이라도 닥쳐 올 듯 한 자연재해에 우리 사회복지인들이 해야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 번쯤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글: 함려진 _ 나가사키국제대학 사회복지학과

사진출처: 엠파스 (www.empas.com)